

생태문화이음길은?

생태문화이음길은 미추홀의 도시의 지형을 이어내는 길입니다.

사람들의 편의에 의해 구분지어진 행정단위를 넘어서 도시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산, 물, 길을 중심으로 확장하고 이어내어 걸어보고, 보다 큰 시선으로 지역을 바라봅니다.

사람들이 지역에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산, 물, 길은 필요에 의해 외형이 달라지기도 하지만, 여전히 지역의 큰 구조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 물, 길 등의 지역자원을 중심으로 변화를 살펴보고 원형을 들여다보는 과정은 도시의 과거와 현재의 시간을 이해하는 과정이 됩니다. 또한, 현재의 도시 구조를 직시하는 과정은 도시를 보다 살기좋은 지역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생태문화이음길 8개 코스를 안내자와 함께 걷다보면, 각 장소들이 어떤 지형 속에 구성되고 연결되어 있는지 만나게 됩니다. 또한, 공간마다에 묻어있는 다양한 시간 속 삶의 양식들을 들여다보게 되고, 나아가 지역 속에서 사람과 더불어 더 많은 존재들 동, 식물, 공간 등이 함께 공존함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8주 간의 과정 속에서 함께하는 이들이 함께 보는 것을 나누면서, 길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코스는? ‘승기천물길’

목적			
인천의 대표적인 물길인 승기천은 미추홀구의 수봉산에서 물길이 시작되었음. 용일사거리~신기사거리~승기사거리로 이어지는 인주대로 인근으로 추정되는데 도시개발로 물길의 원형을 알기는 어려움. 폭염과 폭우 등 전지구적인 기후위기시대를 맞이하여 도시에서의 기후위기대응전략으로 물길복원의 필요성이 더욱 강하게 대두되고 있음. 물길은 숲과 함께 도시의 온도를 낮추는 공간이며 생명의 공간으로 승기천 등 물길을 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			
코스			
인천터미널 ▶ 승기천 정비 시작점 ▶ 선학하키장 ▶ 승기천 ▶ 원인재 ▶ 남동유수지(저어새섬) ▶ 동막역			
필요물품	핸드마이크, 따뜻하고 편안한 복장		
거리	약 8km	소요시간	약 3시간

1. 승기천 정비 시작점



인천은 하천살리기사업을 일찍부터 시작했고 대표적인 곳이 승기천임. 승기천의 상류 대부분은 복개되어 하수도로 이용되고 있음. 인천터미널 부근에서부터 하류로는 열려있는데 과거 생활하수가 그대로 하천으로 흘러들어 수질을 악화시켰음. 하천정비사업을 진행하여 하천이 열려있는 구간에서부터는 하수관을 묻어 생활하수를 차집해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이동하여 처리하고 있음. 비가 많이 내려 하수관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평소에는 생활하수가 흘러들지 않고 있음. 평소 부족한 하천유지용수는 하수종말처리수를 끌어다 이용하고 있음.

2. 선학하키장



2014년 인천아시안경기대회를 위해 인천 곳곳에 경기장을 만들었는데 선학동에는 선학하키장과 빙상경기장을 건설했음. 승기천 주변으로 선학체육관, 선학야구장, 선학파크골프장, 장애인국민체육센터가 위치해있음. 경기장이 만들어지기 전인 2010년경까지는 논과 밭으로 금개구리 등 다양한 야생생물의 서식지였음.

3. 승기천





미추홀구 수봉산과 승학산 자락에서 발원하는 인천을 대표하는 하천. 상류의 미추홀구 구간은 복개되어 도로 등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하류 구간을 열려있음. 연수구와 남동구 경계인 열린 구간은 말끔하게 정비되어 많은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거나 산책하는 곳으로 이용하고 있음. 또한 버드나무, 갈대 등 하천식물 이외에도 왜가리와 백로, 흰뺨검둥오리 등 다양한 야생조류를 찾고 있는 생태공간이기도 함. 미세먼지저감, 도시열섬저감을 위해 하천복원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특히 기후위기로 인한 폭우와 폭염 등 이상기후가 점점 빈번해지면서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복개하천 복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특히 메마른 도시로 인천의 대표적인 원도심인 미추홀의 활력을 위해서도 승기천복원이나 물길조성이 필요한 상황임.

4. 원인재



승기천 옆에 있는 원인재는 인천 이씨(경원 이씨, 인주 이씨) 중시조인 이허겸의 재실임. 재실은 묘소에 딸려 있는 전각이나 제사를 지내기 위해 지은 건물로 원인재 옆에는 이허겸의 묘가 있음. 이허겸은 고려전기 인천의 대표적인 호족으로 손녀 3명이 모두 현종의 비(妃)가 되었음. 인근 지역에 있는 원인재가 택지개발로 지금의 위치로 옮겨옴. 이허겸은 고려 중기의 권신이며 대표적인 외척 세도가였던 이자겸의 고조부이기도 함. 이자겸은 왕의 외조부이자 장인으로 십팔자위왕(十八子爲王) 참설로 왕위를 찬탈하려 난을 일으키기도 함. 원인재는 인천광역시 문화재자료 제5호로 지정된 문화재임. 아파트를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인천 대표 한옥 건물 중 하나로 결혼식 등 행사가 열리기도 함.

5. 남동유수지(저어새섬)





승기천 하류에는 송도갯벌과 연결된 남동유수지가 유지해 있음. 남동유수지 안에 인공섬이 하나 - 지금은 두 개 - 있었는데 2009년부터 이래적으로 전세계적인 희귀조류인 저어새가 번식하고 있음.

저어새는 2021년말 기준으로 약6천마리가 있는 멸종위기종으로 매년 100여마리이상 남동유수지에서 태어남. 저어새는 보통 인천경기만 지역의 무인도에서 태어나는데 남동유수지 저어새섬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도심속 번식지임. 둥지를 만들고 알을 품고 또 아기저어새를 기르는 일련의 과정으로 모두 관찰할 수 있는 유일한 곳임.

저어새는 대만의 국조이기도 한데 저어새를 관찰하기 위해 매년 많은 외국인들이 남동유수지를 찾고 있음. 시민들은 매년 날마다 저어새의 일상을 모니터링하면서 저어새가 태어나면 생일잔치를, 가을 따뜻한 남쪽으로 떠날 때 환송잔치를, 봄에 다시 남동유수지로 돌아보면 환영잔치를 열고 있음.

남동유수지 인공섬에서는 저어새 이외에도 재갈매기도 번식하고 남동유수지에서는 흰뺨검둥오리, 청둥오리, 흑부리오리와 황오리 등 오리류, 가마우지와 왜가리와 백로 등 수많은 새들을 관찰할 수 있음.

6. 동막역



2021년 남동유수지 옆에 저어새생태학습관이 개관했음. 인천시가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저어새생태학습관에서는 봄철 저어새가 돌아오기 전 저어새섬둥지를 정비하고 저어새 등 조류생태교육을 진행하고 조류모니터링 등을 진행하고 있음. 또한 인천시과 인천교통공사는 동막역을 저어새생태학습관역이라 함께 부르며 인천의 깃대종 저어새를 홍보하고 있음. ‘인천의 깃대종 저어새를 만나러 갈 분들은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